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팅도 빌드업도 소용 없었다

벤투호, 월드컵 16강전서 브라질에 1-4 완패
압도적 기량 차 속수무책… 원정 첫 8강 수포

8강 진출의 기적을 일궈보겠다는 '파이팅'도 4년간 갈고 닦은 '빌드업 축구'도 압도적인 개인 기량의 격차 앞에선 소용없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크게 졌다. 이로써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의 목표를 달성한 벤투호의 '아름다운 질주'는 다소 잔혹한 결말을 맞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한국 28위)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브라질을 상대로도 벤투호는 지난 3차례 조별리그 경기에서처럼 당당하게 '자신들의 축구'를 펼쳐 보이려 했다. 조별리그 2차전까지 1무 1패를 해 탈락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거함' 포르투갈에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오른 태극전사들은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7분 만에 비니시우스(레알 마드리드)에게 첫 실점을 하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전반 13분 네이마르(PK·파리 생제르맹), 전반 29분 히샤를리송(토트넘), 전반 36분 루카스 파케타(웨스트햄)가 한국을 향해 골을 연사했다.

브라질은 한국 선수들과 공 다루는 기술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결정력'에서 브라질은 한국과 수준이 달랐다. 전반 30분까지 한국과 브라질의 슈팅 수는 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브라질은 그때 이미 3-0으로 앞서고 있었다. 그만큼 브라질은 더 확실한 기회를 여럿 만들었고, 골대 앞에서 더 냉정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정우영(알사드) 한 명만 세우는 벤투 감독의 대담한 전술도 앞선 3경기에서와 달리 브라질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

벤투 감독의 교체 타이밍도 다소 아쉬웠다. 후반전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래간 가운데 경기 흐름을 바꿀 능력을 갖춘 이강인(마요르카)을 후반 28분에야 투입했다.

비록 큰 점수 차로 졌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부를 벌인 점은 긍정적이다.

벤투호는 기회가 날 때마다 활발하게 공격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색이 짙어져갔으나, 휘슬이 불릴 때까지 긴장감은 유지됐다.

한국은 이강인이 투입되고서 불과 3분 뒤인 후반 31분 백승호(전북)의 호쾌한 중거리슛으로 한 점을 따라붙었다.

이후에도 후반 45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골지역 오른쪽 침투에 이은 오른발 슈팅 등으로 계속 득점을 노렸지만 더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16강 지휘 벤투 "재계약 안 한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견인… "지난 9월 결정"

한국 축구를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53·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4년 4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벤투 감독은 6일(한국시간)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1-4로 패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벤투 감독에 따르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이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이 끝난 뒤 벤투 감독에게 재계약 제의를 했고, 벤투 감독은 지난 9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로써 벤투 감독과 한국 축구의 '4년 동행'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무리됐다.

벤투 감독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2018년 8월 28일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넘게 팀을 이끌어오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이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는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다.

벤투 감독은 단일 임기 기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이다.

벤투 감독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라면서 "일단 포르투갈로 돌아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 뒤에 향후 거취에 대해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것에 대해 고맙다. 그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양준훈·정다은 금메달 행진 합류

2022 제주컵 국제유도대회
이틀째 금 2·은1·동 6 획득

양준훈(한라유도클럽)과 정다은(동남초 4)이 2022 제주컵 국제유도대회에서 제주선수단의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양준훈은 6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초부 -66kg 결승전에서 전태양(인천신현북초)을 맞아 허벅다리 걸기 한판승을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준훈은 앞서 준결승전에서 박가율(옥천초)에 지도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여초부 -40kg의 정다은도 금메달 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정다은은 이날 결승전에서 강민하(서울송중초)를 맞아 굳히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정상에 섰다. 정다은은 8강전에서 이예서(내성초)를 밭다리 한판으로, 준결승전에서 이나경(영천동부초)에게 양소매 업어치기 기술로 한판승을 거뒀다.

여초부 -44kg의 양아름(에스유도클럽)은 결승전에서 몽골의 오트곤바타르에 패하면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양아름은 준결승전에서 김수정(명덕초)에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결승전에 나섰으나 정상 정복에 실패했다.

남초부 +66kg의 박도엽(한라유도클럽)은 준결승전에서 최성원(탑동초)에 패하면서 동메달을, -36kg의 강민구(동남초)도 준결승전에서 몽골의 오트곤보르드에게 패하면서 3위에 입상했다.

이와 함께 여고부 -70kg의 강주연(남녕고)을 비롯 남중부 -90kg의 강진서(서귀포유도관)와 여중부 +70kg의 강지윤(한라중), 김고은(노형중)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내년 시즌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다.

한편 대회 첫날 남고부 -81kg에 출전했던 고호령(남녕고)은 결승전에서 아쉽게 유도빈(경남체고)에게 패하며 은메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합기도특공무술제주총본관
세계합기도 대회 종합 3위

합기도특공무술제주총본관이 제5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사진

제주총본관(관장 윤연숙)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초·중·고대일반부 멀리낙법, 맨손형, 무기형, 호신술, 격파 등에서 금 21개, 은 13개, 동 8개 등을 획득하며 종합 3위에 올랐다.

다음은 대회 우승자 명단.

◇금메달 ▶초등1부 ▷여 유단형 ▷여 무기 검술=이상 현시연(제서초 2) ▶초등2부 ▷남 유단 형 ▷남 무기 봉술=이상 강예성(제서초 4) ▷여 유단 형 ▷여 무기 봉술 이상 양아린(제서초 4) ▷맨손호신술 홍서우(제동초4) ▷여 유단형 홍라희(일도초 4) ▶초등3부 ▷남 유단형 ▷남 무기 봉술 이상 조수현(중앙초 5) ▷여 무기 봉술 홍서윤(제동초 5) ▷여 유단 형 김다희(제서초 5) ▷여 무기 검술 추서연(한천초 5) ▶중등부 ▷남 유단형 ▷남 무기봉술 이상 이은호(사대부중 3) ▷남 무기 쌍절곤 김재익(제주중 3) ▶고대일반부 ▷남 유단 형 김대찬(영주고 2) ▷무기 호신술 박제연(남녕고 2) ▷맨손 호신술 강경희(제주여상 2) ▷여 무기 검술 최은서(중앙여고 2) ▷남 무기 쌍절곤 부준석(함덕고 2). 조상윤기자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투어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예약폭발 마감임박!
날개 달린 품격여행

01 동경 3박4일
(나리타, 오다이바, 요코하마)
990,000원

02 오사카 3박4일
·12/8, 12/15, 12/22 출발
899,000원

03 베트남 다낭 3박5일
• 12/30 출발
1,090,000원 -5성급 에어텔
1,290,000 원-5성급 관광패키지

04 필리핀 마닐라
· 1/22, 1/24, 4/6출발
*관광 : 1,250,000원
*골프 : 1,290,000원(54홀)
*항공권 : 690,000원

05 타이페이/화년/야류 5일
• 12/24 출발
899,000원

06 세부 3박5일
• 12/15, 2/24 출발
4성급 관광-1,090,000원
5성급 관광-1,290,000원

07 방콕/파타야 3박5일
• 매일 출발 •4명이상 출발
750,000원~ 패키지
1,190,000원~ 골프텔

08 나트랑/달랏 3박5일
· 2/22 출발
1,290,000원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팁/개인비용